

科學의 眞正한 方法論(五)

裴相河君의 理論을 批判함

柳春海

三.

至今까지 나는 斷片的으로 君의 說을 引來하여 批判도 하고 論駁도 하였
다. 그러나 나는 좀 더 具體的으로 總括的으로 君의 說의 根本的 基礎에 論
及하려한다. 前에 引來한 바 君의 說 中에서 君은 辨證法을 알라면 『포이엘
싸하』와 『헤-겔』까지 올라가서 시작할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이에 對하여 第
一 먼저 討究하여 보자.

哲學은 特別한 獨自的 存在를 要求 할만한 何等의 權利도 임의 가지지 못
하게 되었다. 獨自의 哲學은 現實을 把握하자 마자 그의 存在條件을 消失한
다. 그 대신에 人類의 史的 發達の 考察에서 抽象한 가장 一般的 結論에 總
括 畧이 出現된다.

(이 抽象은 現實의 歷史로부터 分離하면 그 自體로서는 何等의 價値도 없
다)-(맑스, 엥겔스)

그리하여 現實과 衝突한 結果이 現實에 適合하지 아는 獨自의 哲學은 死滅
한다. 硬化한 思辨的 形而上學的 體系, 卽 自然을 思辨的으로 固定的 式에
適應식히는 自然科學과 歷史哲學은 死滅한다. 然故로 『因難은 材料의 考察과
系統化와에... 現實 把握에 始作된다』-(맑스, 엥겔스)

그럼으로 舊來의 哲學을 繼承한 것이 內容은 具體的이 아니고 다만 形式的
으로 規定된 것이다. 좀 더 仔細히 말하면 『그 畧에는 從來 哲學으로부터 獨
自的으로 殘存하는 것은 思惟와 一 法則의 學文-卽 形式論理學과 辨證法이
다... 그러나 辨證法은 自然과 人類社會와 및 思惟의 一般的 運動과 發展法則
에 關한 科學 以上の 것은 아니다』-(엥겔스)

卽 思惟는 實有와 가티 辨證法的이지만 概念의 辨證法은 外界의 思想의 辨
證法의 思想에 不過하다. 形式으로는 克服되고 現實的 內容으로는 保管된다.

그러나 實有한 思想은 恒常 辨證法的이지만 反對로 思惟는 君과 가티 純悟

性的 形式的 固定的 形而上學的일 수도 있다. 오직 辨證法的 唯物論만이 現實의 實在에 完全히 適應한 寫象에 無限大로 接近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科學의 任務인 同時에 人類의 第一의 任務이다. 그러나 『맑스』以前의 哲學은 이러한 科學的 認識의 方法論을 提供치 못하였다. 然故로 辨證法的 濫龍이 『헤-겔』과 『포이엘빠하』에 잇다하더라도 -事實上 잇지만-完成은 『맑스』의 功에 잇다. 그러면 君의 所謂 懷疑하자가 何必 『헤-겔 자신이 쓴 글』에서 始作 될 必要가 어데 잇는 것인가?



다음에 君은 『懷疑하자』가 $2+2$ 는 4 와 가튼 形式的 原理 方法論的 形式이라고 主張한다. 그러나 形式論理는 科學的 認識의 方法論 對象認識의 方法論이 될 수는 업다. 그것은 科學的 客觀的 認識을 一部에 不過하다. 그것은 形式的이고 現實的이 아니다. 그것은 悟性에만 依存하고 事物의 深部는 姑捨하고 다만 表面을 할 틀 썬이다. 그러치만 客觀的 現實에 適合하여 그것을 充分히 反映하는 思惟 썬이 正當한 것이라고 云 할 수 잇는 故로 『懷疑하자』와 가튼 形式論理는 思惟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한다. 論理學은 形式的의 것으로 부터 現實的의 것이 되지 안흐면 안된다. 最後로 君은 素朴 經驗論과 辨證法的 唯物論의 關係-異同-을 徹底히 把握하지 못한 것 잣다.

『第一 몬저 우리는 形式主義者(물론 懷疑主義者도 包含... 引用者)가 되면 안된다. 우리는 『經驗論者라야 한다』·『그러나 그것으로도 充分하지 안타』-(이·롭폴)이와 가튼 意味에 잇서서 어느 정도까지의 經驗論도 우리는 引用 할 수가 잇다. 그썬 아니라 意識的으로 이것을 引用 할 것이며 事實上 必然的으로도 썬 그러하다. 그러나 素朴한 經驗論者는 事物 다만 事物 썬이 自己를 둘러싸고 잇자고 主張한다. 그들은 事物을 聯結하는 關係를 看過한다. 다만 抽象의 길을 거러 나가서 우리는 事物에서 出發하여 그것을 結合하는 關係와 그것이 그 支配를 受하는 法則을 引出 할 수가 잇는 것이다.

『內容이 論理的 考察에 取入됨을 싸라 그것은 事物이 아니고 事體가 物의 概念의 對象이 되야 物이 아니고 物의 運動法則이 唯物論的이 된다』-(헤-겔 論理의 科學大綱)科學的 抽象 썬이 個個의 物質的 事物이 아니고 事物의 運動法則을 把握 할 수 잇게 한다. 그리고 이 運動法則 그것이 참으로 現實의 內容의 本質이다.